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미국편  
(17) 링컨센터



5개의 극장과 12개의 상주예술단체를 거느린 세계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인 링컨센터 전경. 매년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방문하는 링컨센터는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더불어 뉴욕을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관광명소 /뉴욕=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슬럼가에서 품격도시로 탈바꿈 '뉴욕의 랜드마크'

## 뉴욕=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지난 1959년 5월14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Upper West Side)에서 열린 링컨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그는 기념사에서 "링컨센터가 빈곤과 범죄의 온상으로 얼룩진 뉴욕을 문화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구심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링컨센터 주변은 빈민들이 몰려들면서 슬럼가로 변했다. 뉴욕시는 '도시 살리기'의 묘안을 고심하던 중 록펠러재단과 함께 총 공사비 1억 5000만 달러를 들여 대규모 복합아트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날 마에스트로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의 지휘아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뉴욕 필하모닉)는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Fanfare For The Common Man)',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메조 소프라노 리스 스티븐슨은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를 공연해 링컨센터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지금, 뉴욕은 '탄 세상'이 됐다. 한 때 매년 2300건의 범죄사건이 일어난 어둠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미술,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이 어우러지는 명품문화도시로 변신했다. 그중에서도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변신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근래 이 지역은 뉴욕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주거지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린 건 링컨센터(Lincoln Center)다. 2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61년 문을 연 링컨센터는 단숨에 뉴욕인들을 '예술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이전까지 뉴욕 공연예술의 본산으로 군림하던 카네기 홀은 링컨센터에게 '왕관'을 내줘야 했다.

링컨센터는 브로드웨이 62~65번가와 콜럼버스 애비뉴가 교차하는 '목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약 16에이커(약 6만5천㎡). 흔히 링컨센터라고 하면 5개의 건물과 그 안에 상주하는 12개의 예술단체를 지칭한다. 대규모 복합문화예술단지라는 뜻에서 '링컨센터 캠퍼스'(Lincoln Center Campus)라고도 불린다. 오페라 전용극장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3900석)를 중심으로 데이비드 H.코크극장(일명 뉴욕주립극장)과 에이버리 피셔홀이 양옆에 들어서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지난 1883년 창설된 세계 최정상급의 오페라로 매 시즌(9월하순~다음해 5월)마다 약 200여 회의 공연을 선사한다. 시즌이 끝나면 일본, 유럽지역을 순회하는 동시에 지난 193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 세계 42개국 1100만 명의 청취자들에게 아름다운 오페라를 들려준다. 링컨센터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장은 물론 무대세트 제작과정 등을 보여주는 '백 스테이지 투어'를 실시해 관광상품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데이비드 H. 코크극장(2713석)은 뉴욕시립발레단, 뉴욕시립 오페라단의 전용극장으로 우리에게 지난 8월 국내 창작 뮤지컬 '안중근'이 공연돼 친숙해진 곳이다. 미 석유재벌 데이비드 코크가 뉴욕주립극장 리노베이션에 1억달러를 지원한 인연을 계기로 이름은

## 11개 예술단체 다양한 레퍼토리 세계 애호가들과 소통 개관 50년 年 500만 방문...뉴욕, 최고 주거지로 부상

바뀌었다.

에이버리 피셔홀(2738석)은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과 더불어 세계3대 교향악단으로 불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용무대다. 개관 초기엔 시야가 막히지 않는 타원형으로 설계했지만 음향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여러 번의 보수공사를 거쳐 세계 최고의 음악당으로 거듭났다.

링컨센터의 또 다른 자산은 막강한 예술단체를 패밀리로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필하모닉 이외에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필름 협회, 재즈링컨센터, 줄리어드 음대, 링컨예술센터, 링컨극장, 뉴욕시립발레단, 아메리칸 발레학교 등 화려한 면면을 자랑한다. 각 극장과 상주예술단체들은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과 페스티벌 등을 통해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과 소통한다. 상주단체의 시즌 오프기간에는 세계 각국 유명 단체의 대관공연이 이루어지는 데 대관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처럼 예술가들에겐 문턱이 높은 링컨센터이지만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이웃이다. 지난 2009년 링컨센터 1층에 단장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아트리움(David Rubenstein Atrium)은 가난한 뉴욕커라도 언제든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무료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특정시간에 가면 100불이 넘는 고가의 오페라 티켓도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뉴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사랑방이다.

링컨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면모로 전 세계 아트센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설립된 링컨센터 산하 예술교육기관(Lincoln Center Institute for the Arts in Education·LCI)이 그것으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예술학교'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적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와 LCI 소속 예술가들이 특정 교과목에 무용, 연극, 음악공연을 접목시킨 자체 커리큘럼으로 잠재된 학생들의 감성을 끌어내고 있다. 매년 미 전역에서 수만 명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LCI를 통해 미래의 문화관광객이 되기 위한 자질을 배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조셉 볼페(Joseph Volpe) 총감독은 "매년 500만 명의 방문객 가운데 그저 '건물'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링컨센터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면서 "21세기의 아트센터는 공연예술의 무대로서 뿐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지난 2009년 문을 연 링컨센터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은 뉴욕인들의 문화사랑방이다.

정도도 링컨센터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면서 "21세기의 아트센터는 공연예술의 무대로서 뿐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다"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학생독립운동82주년기념 및 민통창립30주년기념

# 제3회 시민건강걷기대회



·일시 : 2011년 11월 6일 (일)

현장접수 : 12:00 ~ 1:20

식전행사 : 1:30 걷기대회 오후2시

·장소 : 광주상무시민공원

·참가비 : 무료

참가자에게는고급남녀등산양말1set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12시부터 1시20분까지 현장접수 및 배번호 배포를 시작하며 식전행사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